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TEL: 553-0941/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GATT 이사회, 반덤핑 규정에 관한 “Panel” 보고서 채택유보

GATT의 분쟁 위원회(Disputes Panel)은 EC가 현지 조립공장에 대해 부과해 온 스크루 드라이버 규정이 GATT에 위배됨을 발표. GATT 이사회는 '90. 4. 3일 회의에서 “Panel”의 판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졌으나 EC가 동 판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사회 회의 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것임을 이사회 회의에서 표명했음. 결과적으로 동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으며 차기 회의시 재거론될 것임.

EC는 동건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대표들의 거취에 관심.

EC측은 “Panel”의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박,

- i) “Articles III, XX(d)” of the GATT, 조문의 제한적 해석
- ii) GATT “Panel”이 수입국의 관세 회피로부터 EC 산업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GATT 규정하에 합법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지적되지 않았음.

2. 한국 전자산업의 정체

1980년대 급성장을 이룩했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현재 그 기세가 꺾였음이 보도됨.

이러한 추세는 거친 국제환경과, 시장 선도국인 미국, 일본과 저가품을 생산하는 말레이

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해 중간적 입장의 시장 위치로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관련 전자업체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시.

- ① 미국시장 위주로부터 EC, 동유럽, 아시아 등지로의 시장 다변화
- ② 해외 생산거점 확보
- ③ OEM에서 자사 상품 위주 전략
- ④ R & D 투자증대
- ⑤ 고부가가치 생산

3. EC, 중국산 Video Cassettes 덤핑 조사

CEFIC(The European Council of Chemical Industry Federations)의 주장에 따라 EC 집행위는 중국 Video Cassettes의 덤핑을 조사할 것이라 발표했다. 동제품은 일본 JVC-Victor Co. 라이선스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임.

여기에는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므로 수입제품의 가격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비교되어질 수 있음이 제시되었음.

현재 한국 및 홍콩산 Video Cassettes에 대해서 A/D 규정이 적용됨.

4. EC, 1회용 라이터 수입품에 대한 A/D 조사

EC 집행위는 중국, 한국 및 태국산 1회용

라이터에 대해 A/D 절차를 개시함. 이는 유럽 라이터 제조자 협회(the European Federation of Lighter Manufacturers)의 제소에 따르는 것으로, 여기에는 EC 제품의 가격에 비해 이들 수입품이 54~108% 이하의 가격에 EC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이 지적되어 있음.

5. 헝가리, EC 회원국 가입신청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헝가리 민주주의 포럼(Hungarian Democratic Form) 의장은 자신의 당은 헝가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EC에 가입하길 원하고 있음을 표명.

그러나 EC는 시장통합 계획이 완료되는 1992년까지는 더이상 확대를 고려치 않고 있음.

한편, 오스트리아가 이미 회원가입을 신청해 놓고 있음.

6. 중국, TV 무관세 쿼타 소진

저개발국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계획안에, EC는 무관세 수입품을 다양한 제품에 대해 허용할 지 모름.

EC 집행위는 중국원산의 TV 무관세 쿼타가 모두 소진되었음을 알리며 추가적 TV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7. "SONY FRANCE", 블란서에 Video Components Plant 설립

소니의 프랑스 자회사는 프랑스 내에 오디오·비디오 콤포넌트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이 보도되었음.

이 공장은 1991년 여름부터 제품을 생산할 계획임.

8. 대만, 유럽에 생산공장 설립 계획

최근 기자회견에서 "BIPA"(Taiwan's Brand

International Promotion Awareness Association)는, 대만이 1990년대에 유럽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컴퓨터 제작회사들이 자사나 합작 또는 기업인수 등의 방법을 통해 유럽에 설립되어질 계획임.

9. 한국산 SCTV A/D 확정판정

15.5cm(약 6인치)~42cm(16인치) 사이의 한국산 소형 TV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되었음.

이번 판정에서 6인치 이하의 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상의 차이로 제외되었음.

- ① Size' Weight
- ② 기술적 특성(배터리 사용 등)
- ③ 짧은 시청시간과 옥외사용
- ④ 14" 및 16"와 가격차이가 크지 않음.

이상은 반덤핑 조사 진행과정에서 수출업자들이 제기한 것과 동일한 것들임.

EC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집행위의 예비판정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며, 이중 한국업체들의 국내 할부판매에 대한 리베이트는 정상가격산정시 국내 총 판매가격에서 감산할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 인하효과를 가지게 됨.

-가중평균덤핑마진

- 대우 10.23%
- 금성 10.42%
- 삼성 10.50%
- 기타 19.50%

이사회 결정에서 관심을 끄는 점은 한 Exporter가 수입업자에게, 집행위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으나 동수입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았으므로 해서 이 수출업자가 제출한 정보는 다시 검토되어지거나 명료한 것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함을 결정할 것임.

또한 조사진행중 오스트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조사치 않고 한국만 포함시킨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있었

으나 집행위는 이들 국가들의 덤핑과 EC 산업 피해에 관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들어 기각.

Price Undertaking은 정식으로 요청된 바 없으며, 그 실효성의 불확실성과 모델의 급변 그리고 조사기간중 비협조성 등으로 인해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임을 확인.

10. BEUC, IOCU

The European Bureau of Consumers Unions(BEUC)와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s(IOCU)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내에서 EC는 반덤핑 정책과 신발 산업의 자유화에 대해 진전을 보이도록 촉구.

BEUC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의 신발 수입품에 대한 잠정 규제조치를 원하며, 집행위에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요청했음.

EC의 소비자들은 반덤핑 관세로 인해 전자 제품에 대해 820만 ECU의 추가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영국 소비자 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의 조사에 의해, BEAU는 덤핑마진의 산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제안.

- ① 집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관세 비용 계산
- ② 과대한 마진 산정 회피
- ③ 소비자 단체와 협상
- ④ 물리적 피해 검증 강화(원인규명)

11. 반덤핑 정책 공청회

유럽 국회(European Parliament)의 대외 경제관련 위원회는 최근 덤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여러 관련자들이 EC A/D 정책에 관한 견해를 피력할 수 있도록 한 공청회를 주선했음.

Union of Industrial과 Employers Confederations의 대변인은 정책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음.

- ① A/D 절차의 시간제한을 법적으로 제한
- ② 국별 조치(regionalised actions)의 간소화
- ③ 통계발표는 타당하고 공식적인 통계
- ④ 잠정관세 부과 이전의 1차조사는 최대 2, 3개월 이내에 제출
- ⑤ 반복 덤핑의 경우 Price Undertaking 자동거부
- ⑥ 비용 재구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며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행
- ⑦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이전의 기간까지 소급적용
- ⑧ 간접덤핑과 역덤핑 보호
- ⑨ 표준양식의 질의서를 보다 신속히 송부
- ⑩ 조사절차의 단축을 위해 "EC의 이익"을 규정하는데 역점
- ⑪ Price Undertaking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
- ⑫ Accelerated Procedure를 취한 경우에 사법 재판소(Court of Justice)에 제소할 수 있음.
- ⑬ 재조사에 관한 특별절차 마련
- ⑭ 관세상환 절차의 명료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EC산업은 현행의 엄격한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몇몇 부분에서 더욱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2. 미·EC 반도체 업체, 반덤핑법 개정요구

미국의 SIA(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와 유럽의 EECA(European Electronic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우루과이 라운드 기간 중 반덤핑 코드를 개정토록 요구.

SIA와 EECA는 현행 반덤핑 절차가 너무 길어서, 절차가 완료되면 예의 제품이 이미 구식이 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입.
이러한 개정제안들은 또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그리고 북유럽국가 및 EC 등의 국가들에 의해서도 GATT에 제안되고 있음.

13. 반덤핑 판정 만료 임박

EC 집행위는 일본산 전자저울(Electronic weighing-scales)에 대해 발표중인 A/D 판정이 재심신청이 없을시 향후 6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임을 발표.

이 Case는 덤핑마진 산정방법에 있어 조작적이며 과대히 산정되었다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초기의 case들 중의 하나이며, EC내 일본 조립 공장에 대한 "Screwdriver" 조사가 실시되었었음.

14. 대만, 신발 수출 자율규제 동의

대만은 EC로 수출한 자국산 신발수출품에 대해 자율규제키로 동의했음.

이는 EC와의 관계유지와 함께 신발 및 섬유제품이 더이상 수출주종이 아니며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차 동남아시아로 이동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15. 한국의 쌍용, 영국의 Brown goods market 참여

한국의 쌍용이 영국의 Brown goods market (TV, VCR 등의 제품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의 흰색제품을 나타내는 White good와 대조되는 용어)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 제품으로는 TV, 위성수신기, 전자랜지, Fax machine, radio, hi-fi component system 등임.

新 刊 案 內

“韓國 電子産業의 國際化 戰略”

- 1990년대 한국전자산업이 새롭게 대처해야 할 국제 경쟁환경과,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전자업계가 가져야 할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을 위해 부문별, 지역별로 새로운 국제화 전략방향을 제시한 연구 보고서로서 내·외부적 환경도전에 직면한 한국전자업계의 향후 국제화 전략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주요수록내용
 - 국내 전자산업의 환경변화;

- 기술환경 1, 경쟁환경 1, 시장환경
- 국제화 전략방향 :
 - 기본방향/국제화목표/구체적 국제화 방안
- 부문별 지역별 국제화 전략 :
 - 가전제품/정보통신기기/반도체/일반전자부품
- 판매가격 및 발간부수
 - 가 격 : 5,000원 (100부 한정 판매)
 - 요약본 : 무료 배포
 - 기술환경/경쟁환경/시장환경